

‘축구의 신’ 메시가 미국으로 가는 까닭은?



바르셀로나 가면 동료 선수들 방출·급여 삭감
돈을 원했다면 사우디로 갔겠지만 다른 선택
MLS 마이애미에서 또 다른 축구를 즐기고파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둘러싼 ‘세기의 영입전’의 최종 승자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의 인터 마이애미로 확정됐다.

메시는 8일 스페인 신문 스포츠 앤드 문도 데포르티보와 인터뷰에서 “MLS 마이애미로 가기로 했다”며 “아직 이적 과정이 100% 끝난 것은 아니지만 마이애미로 가는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04년 프로 데뷔부터 줄곧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뛴 메시는 2021~2022시즌을 앞두고 PSG로 이적했고, 이달 말로 PSG와 계약이 끝난다.

그의 다음 행선지로 FC바르셀로나 복귀, 사우디아라비아 리그 진출, MLS행 등이 거론됐고 그의 선택은 미국이었다.

메시는 이 인터뷰에서 “지난해 월드컵이 끝나고 바르셀로나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됐을 때 유럽을 떠나겠다고 결정했다”며 “지금 미국으로 가서 또 다른 방법으로 축구를 즐기며 지낼 때라고 생각했다”고 미국행을 결심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물론 경기에 이기려는 마음이나 책임감은 예전과 같을 것”이라고 축구에 대한 열정이 줄어든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메시는 또 “내가 돈을 생각했다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라며 “내 결정은 돈과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메시가 선택한 MLS 인터 마이애미는 데이비드 베컴(영국)이 공동 구단주 겸 회장을 맡고 있는 팀이다.

이번 시즌 16경기를 치러 5승 11패로 동부 콘퍼런스 15개 팀 가운데 최하위다. 필 네빌 감독이 지난주 해임됐다.

메시는 ‘진정’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정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하지만 (나를 영입하려면) 일부 선수들을 방출하고 또 급여를 깎아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2021년 8월 바르셀로나를 떠나며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던 메시는 “같은 상황을 다시 만들고 싶지 않았다”며 “나의 미래를 나 자신과 우리 가족을 위해 내가 직접 결정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바르셀로나로 돌아가서 구단에 기여하고 싶다”고 여운을 남겼다.

한편 메시가 미국행을 택하면서 미국프로축구에서 몸담은 ‘빅 네임’이 하나 더 늘었다.

1970년대 펠레(브라질)를 시작으로 프란츠 벤크나워(독일), 요한 크라위프(네덜란드), 베컴, 즐라탄 이브라히모비치(스웨덴), 티에리 앙리(프랑스), 웨인 루니(잉글랜드) 등이 MLS와 그의 전신 격인 북미사커리그(NASL)에서 뛰었다.

앞서 영국 BBC 등은 메시와 MLS 간 협상에 정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의 다음 행선지가 미국프로축구 메이저리그 사커(MLS) 인터 마이애미로 확정된 7일(현지시간) 한 가족이 마이애미 거리에 등장한 메시 벽화 옆을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통한 소식통들을 인용, 오는 7월 21일 인터 마이애미와 크루스 아슬의 리그컵 홈 경기를 메시의 데뷔전으로 점찍어줄 정도로 구채적 사안을 논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들 매체는 모두 MLS를 후원하는 거대 다국적 기업 두 곳의 지원이 메시의 마이애미행 가능성을 크게 높인 것으로 본다.

애플이 출시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애플

TV+가 올 시즌부터 10년간 MLS 중계를 책임지는데, ‘시즌 패스’(한 시즌 중계 패키지 이용권) 수익의 일부를 메시에게 제공하는 안을 검토했다고 디에슬레틱은 전했다.

/연합뉴스



위기의 양현종, 그래도 믿고 간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이 힘겨운 6월을 보내고 있다. 양현종은 지난 7일 SSG 랜더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로 나와 백승건과 맞대결을 벌였다.

초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양현종이 최지훈·박성현·최정을 상대한 1회를 삼자범퇴로 막았고, 소크라테스와 최형우는 1회부터 ‘백투백’ 홈런을 가동하면서 양현종의 어깨를 가볍게 해줬다.

2회에는 내야 안타와 볼넷으로 1사 1·2루 위기가 있었지만 양현종은 김성현을 중견수 플라이로 잡고, 김민식의 타구는 직접 잡아 이닝을 끝냈다.

하지만 3회 시작부터 연속 2루타였다. 양현종은 3회 에러대야를 상대로 이날 첫 탈삼진도 뽑았지만 2개의 2루타 포함 4피안타 1볼넷으로 2·3 역전을 허용했다.

양현종을 돕기 위해 3회말 다시 타자들이 움직였다. 류지혁의 볼넷과 박찬호의 2루타로 맞은 무사 2·3루, 소크라테스가 다시 한번 담장을 넘기면서 5·3루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양현종은 소크라테스의 활약에 응답하지 못했다. 4회 2사에서 4연속 안타를 맞는 등 3실점했고, 5회에도 선두타자 오태곤에게 좌측 2루타를 맞는 등 4.1이닝 11피안타 2볼넷 3탈삼진 7실점을 기록했다.

문제는 앞선 등판에서도 양현종은 개인 한 경기

두 경기 연속 안타 개인 최다 실점
로테이션 변화 없이 예정대로 등판

최다 실점을 기록하는 등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양현종은 지난 2일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도 고개를 숙였다.

경기 시작과 함께 4연속 안타로 흔들렸고, 이학주에게 만루포를 내주는 등 1회에만 7실점을 했다. 2회에도 전준우와 정훈에게 2루타를 맞는 등 난타를 당하면서 양현종의 등판이 2회에서 끝이 났다.

양현종의 이날 성적은 2이닝 9피안타(1피홈런) 2볼넷 9실점. 이날 투구수가 47개에 그쳤던 만큼 양현종은 4일 휴식 뒤 7일 마운드에 올라 병예회복을 위한 무대에 나섰다.

이날 등판전까지 양현종이 SSG전 9연승을 달렸던 만큼 자신감도 컸다. 양현종은 2018년 8월 11일 문학전 승리 이후 SSG를 상대로 9연승을 기록했다. 지난 5월 9일 안방에서 진행한 김광현과의 논길 그는 ‘맞대결’에서도 8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투수가 됐지만 양현종은 두 경기 연속 무너졌다.

앞서 KIA는 5월 부진이 계속됐던 앤더슨을 엔트리에서 빼고 재정비 시간을 갖게 했었다. 일단 김중국 감독은 예정대로 양현종에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김중국 감독은 8일 “전력분석도 봤는데 매커니

즘적으로는 달라진 것은 없고 몰린 공이 많았던 것을 상대가 타자가 잘 공략했다”며 “두 경기 연속 이런 적이 없으니까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 것”이다. 시즌 중이니까 잘 이겨내리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로테이션 등 변화 없이 예정대로 로테이션대로 양현종이 등판한다고 예고했다.

양현종은 두 경기 연속 난타를 당했지만 7일 경기에서도 스피드는 이상 없었다. 작구(53구) 최고 구속은 147km, 평균 구속도 141km를 기록하면서 시즌 초반과 다를 게 없었다.

KIA 입장에서는 양현종의 반전이 절실하다.

시즌 전 KIA의 강점으로 꼽히던 선발전에 빈틈이 많이 생겼다. 앤더슨이 한 차례 재정비 시간을 가졌고 메디나도 외국인 선수다운 위력적인 모습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외리는 매서운 구위로 놀라운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제구난조로 예측 불허의 시즌을 보내고 있다. 신인 윤영철이 가장 안정적인 모습으로 시즌을 풀어나가고 있지만 아직은 경험이 적고, 관리가 필요한 고졸 투기다.

양현종에게 일단 역할을 맡긴 KIA는 날이 더워지는 만큼 활동화와 김유신으로 선발진 플랜B를 준비해놨다.

활동하는 양현종이 이달 말 무너진 두 경기에서 두 번째 투수로 나와 각각 3이닝과 2이닝을 책임지면서 눈길을 끌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스마일 점퍼’ 우상혁 월드랭킹 1위 탈환

한 달 4개 대회 참가 뛰어난 성과

한 달 동안 4개 대회에 참가해 뛰어난 성과를 낸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사진) 3개월 만에 ‘월드랭킹 1위’를 탈환했다.

세계육상연맹은 8일 홈페이지에 각 종목 월드랭킹을 업데이트했다.

6월 8일까지 치른 경기를 기준으로 업데이트한 남자 높이뛰기 월드랭킹에서 우상혁은 3위에서 1위로 올라섰다.

지난해 7월 26일 월드랭킹 1위로 올라선 우상혁은 올해 초 실내 시즌에 단 한 번만 출전한 탓에 평균 점수가 떨어져 3월 21일에 3위로 밀렸다.

그러나 5월 6일 도하 다이아몬드리그 2위(2m 27),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 선발전을 겸한 5월 9일 예전 KBS배 우승(2m 32), 5월 21일 요코하마 끝난 그랑프리 우승(2m 29),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 2위(2m 30)에 오르며 다시 랭킹 포인트를 끌어올려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우상혁은 2023년 기록 순위에서는 2m 32로 시



즌 최고 2m 33을 넘은 주본 해리슨(미국), 조엘 바덴(호주)에 이은 공동 3위다.

하지만, 대회별 성적을 포인트로 환산한 ‘월드랭킹’ 부문에서는 1위를 되찾았다.

우상혁은 2022년

7월 실외 세계선수권 결선(2m 35로 2위·1554점), 2022년 8월 모나코 다이아몬드리그(2m 30으로 2위·1349점), 2023년 6월 로마·피렌체 다이아몬드리그(2m 30으로 2위·1349점), 올해 5월 도하 다이아몬드리그(2m 27로 2위·1322점), 요코하마 끝난 그랑프리(2m 29로 우승·1310점)가 ‘높은 포인트를 얻은 5개 대회’로 선택됐고, 평균 1376점을 기록했다. 5월 30일 기준 평균 1359점보다 17점이 올랐다.

/연합뉴스

박민지 “KLPGA 단일 대회 3연패 도전”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출전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사상 다섯 번째로 단일 대회 3연패에 도전하는 박민지(사진)가 “비장한 마음으로 나왔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민지는 8일 강원도 양양 설해원 더 레전드코스(파72·6678야드)에서 열린 KLPGA 투어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총상금 12억원)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지금까지 대회 3연패를 이룬 선수가 모두 레전드인 분들”이라며 “저도 그 옆에 나란히 할 수 있을지 하는 기대와 희망을 안고 비장하게 나왔다”고 말했다.

9일 개막하는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박민지가 최근 2년 연속 정상을 지킨 대회다.

KLPGA 투어에서 동일 대회 3연속 우승은 고(故) 구옥희 전 KLPGA 회장(1982년), 박세리(1997년), 강수연(2002년), 김해림(2018년) 등 쟁쟁한 선수들만 보유한 기록이다.

최근 2년 연속 KLPGA 투어 상금왕을 차지한 투어 최강자 박민지는 올해는 아직 우승이 없다.

이번 시즌 7개 대회에 나와 4월 메디힐·한국일보 챔피언십 3위가 최고 성적이다. 이 대회에 앞서 3연패를 노렸던 5월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에서 9위로 3연패달성에 실패했다. 5월 말 E1 채리티오픈에서는 컷탈락했다.



2021년과 2022년에 연달아 6승씩 따낸 그는 “다시 우승 물고기를 트기 위해 잘했을 때 루틴이나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 돌아보며 노력 중”이라며 “지금

은 다시 높이 올라가기 위해 버티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박민지는 “좋다는 것은 다 하면서 굉장히 바쁘게 살고 있다”고 근황을 전하며 “책도 읽고, 일기도 쓰고, 좋은 생각만 하고, 매 상황에 집중하며 잘했을 때로 돌아가려고 열심히 준비 중인 만큼 곧 우승해서 여기(미디어센터)에 오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또 성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밝은 모습으로 골프에 정말 진지하고, 열중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며 “저를 보시면서 행복하고, 힐링이 되는 느낌이 드는 선수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